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분석

-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명 진

#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분석

-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황 선 엮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명 진

## 논문개요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의 학습은 연상 및 유추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우리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교과서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용 표현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고, 관용 표현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용 표현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 표현 교육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이 개정 중점 항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용 표현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천재교육(박) 『국어』 교과서와 비상교육(조) 『국어』 교과서이며, 분석 과정은 교과서 구성에 따라 학습목표, 본문, 학습활동 순으로 살펴보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가 앞으로 계속될 관용 표현 교육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 1.1. 연구 목적과 방법 . . . . . 1
- 1.2. 선행 연구 검토
  - 1.2.1. 관용 표현의 이론적 연구 . . . . . 4
  - 1.2.2. 관용 표현의 교육적 연구 . . . . . 6

### II.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

- 2.1.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 . . . . . 8
- 2.2. 관용 표현의 효과 . . . . . 15

### III. 2007 개정 교육과정 관용 표현 교육 내용 분석

- 3.1. 관용 표현 교육 목표 . . . . . 21
- 3.2. 관용 표현 교육 내용
  - 3.2.1. 내용 체계 . . . . . 26
  - 3.2.2. 학년별 내용 . . . . . 29

### IV. 2007 개정 교과서 관용 표현 관련 단위 분석 및 평가

- 4.1. 관용 표현 관련 단위 분석 및 평가의 기준 . . . . . 35
- 4.2. 2007 개정 교과서 관용 표현 관련 단위 분석 및 평가
  - 4.2.1. 천재(박) 『국어』 교과서 분석 및 평가 . . . . . 38
  - 4.2.2. 비상(조) 『국어』 교과서 분석 및 평가 . . . . . 43

### V. 결론 . . . . . 51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I. 서론

## 1.1. 연구 목적과 방법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지식,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이 새로운 표현은 유사한 상황에 자주 쓰이다가 대중성을 얻게 되어, 그 언어사회에 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될 때 비로소 관용 표현의 지위를 얻게 된다.<sup>1)</sup> 이렇듯 관용 표현은 우리 사회·문화·역사를 기반으로 언중속에서 형성되고 그들의 담화 현장에서 익숙한 형태로 통용될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언어의 그윽한 맛과 인정, 교훈,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주기도 하는 수준 높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용 표현은 구조와 의미의 관계로 볼 때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sup>2)</sup>이므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학습자나 외국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

---

1) 강위규(1998 : 43)

2)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의 합이 아닌 제 3의 의미로 해석된다.

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sup>3)</sup>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과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과 국어 문화의 창조, 공동체의 발전과 자아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관용 표현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국어과의 성격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관용 표현은 그 언어 사회가 만들어 낸 함축적이고 효과적인 표현 형식으로서 학생들은 이러한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표현할 수 있으며, 관용 표현 생성에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어의 질을 윤택하게 하여 보다 나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론에만 치중되어 있고, 그에 비해 학교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연구는 그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교과서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용 표현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관용 표현 교육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II장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앞서서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고, 관용 표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3) 교육과학기술부(2008 : 15)

Ⅲ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용 표현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를 유추해 보고,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이 개정 중점 항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용 표현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때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천재교육(박) 『국어』 교과서와 비상교육(조) 『국어』 교과서이며, 분석 과정은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구성에 맞추어 학습목표, 본문, 학습활동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 1.2. 선행 연구 검토

관용 표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관용 표현의 개념이나 범위, 유형, 통사적 특성 등을 다루는 이론적 연구와 관용 표현이 교육과정, 교과서 등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루는 교육적 연구로 나뉜다.

### 1.2.1. 관용 표현의 이론적 연구

국어학 일반론적 연구로는 김종택(1971), 김문창(1974), 이택희(1983), 심재기(1986), 강위규(1990), 김라연(1996), 문금현(1999), 박만규(2002), 권경일(2005) 등을 들 수 있다.

김종택(1971)은 관용 표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관용어를 Idiom이라고 명명하고, 관용어에서부터 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용어와 일반 복합어, 일반 구와의 구별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상대음미법과 부정음미법으로 이디엄을 검진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김문창(1974)은 학계에서 속어(관용어)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음을 문제 삼고, 서구 · 일본 · 국내학계의 170편 정도의 논저를 참고하여 속어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택희(1983)는 관용적 표현과 그 의미 산정 방법을 화자와 청자 그리고 상황으로 이어지는 화용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 또한 관용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 · 반어적 표현 · 간접적 발화 행위의 관계를 살펴, 청자가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모를 때 비유적 표현 · 반어적 표현 · 간접적 발화 행위에 기초하여 의미를 산정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심재기(1986)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맥적 요소와 화맥내 화자의 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화용론적 관점으로 한국어 관용 표현 가운데 속어와 인사말을 고찰하였다.

강위규(1990)는 관용 표현에 대한 개념과 성립 요건, 생성 원인과 형성 과정, 유형 및 특성 등을 의미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김라연(1996)은 관용 표현이라는 상위 개념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하위 범주들의 특징을 의미 · 형태 · 통사론적 관점에서 변별 자질을 주어 살펴보았다. 또한 관용 표현의 범주를 크게 형태론적 관용 표현과 통사론적 관용 표현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다의어 · 융합 합성어 · 은어 · 속어를, 후자에는 관용구 · 은유 · 속담 · 속어를 포함시켰다.

문금현(1999)은 관용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통시적인 국어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관용 표현의 어휘 · 의미 · 화용론적인 측면과 통사론 · 사전학적인 측면을 두루 살폈다는 점에서 국어 관용 표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박만규(2002)는 관용 표현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다수의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동일한 개념화에 이르고 있으나, 구체적 표현에 이를 적용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대상부류 개념에 의한 어휘적 의미와 임시적 해석의 구분을 통해 체언과 용언의 다의성 분석을 시행하여 의미 분석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이루었다.

권경일(2005)은 학문 분야로서의 ‘관용구론’을 확립시키고, 관용구의 통사 · 의미론적인 특성과 의미 · 화용적인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형태, 의미, 기능의 측면에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 1.2.2. 관용 표현의 교육적 연구

다음으로 관용 표현에 대한 국어 교육 차원의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나타났는데, 김미련(1994), 문금현(1999), 심주연(2000), 이광주(2002), 한세경(2004), 장미정(2004), 안연희(2006), 신선미(2006), 이윤정(2007) 등을 들 수 있다.

김미련(1994)은 중학생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관용 표현의 교육 실태와 세대 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용 표현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교육 과정의 측면, 교과서의 측면, 교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금현(1999)은 초·중·고 교육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국어 관용 표현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전 학년 교과서를 분석하고 목록화한 체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심주연(2000)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관용 표현의 활용 방안과 학습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광주(2002)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관용 표현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용 표현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관용 표현의 활용 방안을 위한 교수 학습 모형과 전략을 모색해 보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한세경(2004)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관용 표현 교육의 현황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음,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용어 교육의 체계화 방안과 지도 방법을 제

시하였다. 특히 학년을 저·중·고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지도 단계도 놀이 위주의 이해 학습 단계, 표현 위주의 체험 학습 단계, 국어 지식면의 탐구 학습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장미정(2004)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교육과정 중, 기본 학습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학습에 관심을 두고 관용 표현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안연희(2006)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을 수집 분석한 후, 사용 빈도와 교육적 가치, 학습자의 단계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용 관용어 목록을 만들었다. 또한 학습 단계와 체계에 맞춰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신선미(2006)는 관용 표현의 심화 학습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기본 학습 지도 방법을 이해·표현·놀이의 방법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에는 구성주의의 ‘프로젝트 접근법’ 4단계를 접목시킨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운정(2007)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관용 표현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 뜻을 풀이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중·고등학교 학년별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문학 작품이나 신문 기사 또는 방송 자료 등의 일상적 매체를 활용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 II.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

### 2.1.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

우리 언어 생활에서 ‘미역국(을) 먹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단일어인 ‘낙방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그 구성 요소인 ‘미역국’과 ‘먹다’의 의미의 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미역국(을) 먹다’의 구성 성분을 다른 어휘로 대체한 ‘밥을 먹다’나 ‘미역국을 끓이다’와 같은 통사적 차원의 구(句)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sup>4)</sup> 이렇게 ‘미역국(을) 먹다’와 같이,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용 표현의 개념과 명칭이 항상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관용 표현 이론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체계화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이론과 명칭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용어와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기존 논의의 관용 표현 용어와 정의<sup>5)</sup>

연구자	용어	개념
노수연 (1936)	관용구	단어와 단어로 따로 볼 때는 그 어의상에서 무관한 단어의 연결이나 한마디의 말로

4) 한세경(2004 : 3)

5) 권경일(2005 : 11-12)

		볼 때는 뜻이 판명되고 연결된 각 단어 이외의 어의를 가진 두 어 단어의 집합된 언어.
김중택 (1971)	이디엄 관용어	광의로는 다른 언어와의 상대적 특색에 기초하고 있는 한 언어의 전체계를 가리키고 협의로는 언어의 특유한 표현 방법에 기초하는 하나의 의미단위로서의 어형을 가리킴.
김문창 (1974)	관용어	두 어사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절)로서 문법 · 의미 · 통사 등 제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각 구성요소 간의 결합도가 특별히 긴밀하여 일반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일종의 화석형을 숙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의미론적 숙어와 통사론적 숙어로 구분,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금기어, 수수께끼 등을 포함하는 전체를 관용어로 함.
황희영 (1978)	익힘말	한국 사람들이 날마다 언어 생활 습득에서 얻어진 평면적 뜻을 지닌 단순 어휘인 ‘익힘말’이 아니고 그 말 뜻이 의미소의 표면구조만으로 이해될 수 없고 또 다른 뜻으로 표현되어 한국 언어 사회에서만 익혀서 비로소 통할 수 있는 말로서 관습어구(慣習語句).
박영순 (1985)	관용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언어형태로서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이지만 언증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말. 구조적으로는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복수구조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단일 의미를 가지며 개개 단어의 의미의 결합이 아닌 제 3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 언어군.

심재기 (1986)	숙어	두 개 이상의 단어(혹은 어간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 및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의 결합 어휘를 지칭
안경화 (1987)	숙어	관용표현이란 언어의 전반적인 규칙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지만 관습상 통용되는 표현이며, 이러한 관용표현의 하나인 숙어는 굳어진 은유표현의 구 또는 절.
강현화 (1987)	숙어	구성요소 각각의 의미합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중성, 지속성, 현재성, 직설표현과의 연관에 있어서의 굳은 정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
강위규 (1990)	관용 표현	말할이가 특정상황에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특이한 형식의 표현이 그 언어사회에서 대중성을 얻고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의 특성을 지니며 고정성의 특성을 지니는 것.
최경봉 (1992)	관용어	단일한 의미를 창출하는 둘 이상 자립성분의 어휘 복합체이면서 구성 어휘, 성분의 의미가 살아 있지 않은 언어단위이고, 비유적 표현이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
김혜숙 (1992)	익은말	새로운 제3의 의미로 굳어진 구절형으로서, 문법적 · 비문법적 양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 문법적 구절형은 자유문의 직설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동음의 짝을 지니는, 지속성 · 전지역성 · 통용성 · 대중성의 자질을 지닌 관용어구로서 익은말의 상위 개념으로 '관용어구'를 설정.

이희자 (1995)	관용구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으로는 알 수 없는 제 3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속어라 하고 의미적 연어와 통사적 연어 형태적 연어 등을 관용구에 포함시킴
문금현 (1996)	관용 표현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광의의 관용표현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형태 통사적 고정성을 가지고 대중성, 광역성, 지속성, 역사성을 갖춘 것들을 ‘협의의 관용표현’이라 함.
양영희 (1995)	관용표현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구 이상의 단위로 한 언어 공동체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 형식을 관용표현이라 하고 합성어 금기담 길흉담 은어 수수께끼 등은 이에서 제외.
강현화 (1998)	연어	말뭉치에서 하나의 어휘 항목은 다른 몇 개의 어휘 항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를 연어라 함.
민현식 (2003)	관용표현	일정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속담이나 표어, 고전설화나 유행담 등을 포괄함.

<표 1>을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그 개념을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해석되는 언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견해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어의 사용면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자마다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관용 표

현과 관련하여 관용어, 관용구, 익힘말, 속어, 익은말, 연어 등 다수의 용어들이 쓰여 왔다.<sup>6)</sup> 이것은 학자들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그보다도 그것이 걸치는 범주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어를 하나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범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표 2>는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된 범주에 대한 내용이다.

<표 2> 기존 논의의 관용 표현의 범주<sup>7)</sup>

연구자	범 주
김문창 (1974)	관용어의 하위개념으로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가 포함된다.
황희영 (1978)	관용 표현의 범주에 파생어와 복합어류, 그리고 ‘본용언+보조용언’ 짜임의 말들이 포함된다.
이영희 (1982)	관용적 표현의 범위에 관습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구문, 속담, 고사성어는 물론 광고문안까지도 포함된다.
박진수 (1985)	어휘적 차원의 관용 표현에 속어, 은어, 비속어, 금기어 등이, 어구 및 문장 차원의 어구에 속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격언, 금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이 포함된다.
심재기 (1986)	어휘적 차원의 관용 표현에는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이 포함되고, 어구 및 문장 차원의 관용 표현에는 속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해몽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이 포함된다.
나은영 (1989)	관용 표현의 하위 범주에 관용구, 복합어, 다의어, 은어, 속담, 금기담, 비유 표현, 상투적 표현이 포함된다.

6) 김문창(1990 : 545)은 학계에 보고된 명칭이 모두 13종류가 넘는다고 하였다.

7) 김라연(1996 : 5-6)

허 석 (1989)	관용어의 하위범주에 다의어 용합 복합어, (고사)성어, 비유어, 속어, 은어, 수수께끼, 속담 외에 특이한 통사적 구조의 언어 단위로서의 관용어가 포함된다.
강위규 (1990)	낱말 차원의 관용 표현은 <+ 차용성, + 동의성, + 은유성, + 대중성>의 자질을 갖는 것이, 구절 형식의 관용 표현을 갖는 것에는 여기에 다시 <+ 고정성>의 자질을 갖는 것이, 비자립적 관용 표현은 <+ 은유성>의 자질 대신에 <+ 고정성>의 자질을 갖는 것이 포함된다.
최경봉 (1992)	관용 표현의 하위 범주에 관용어, 은어, 비속어, 비유 표현, 속담, 다의어, 통사적 속어, 연어, 인사말, 고사성어 등이 포함되고, 관용어 영역 속에 은어, 비유 표현 등이 계속 추가될 수 있고, 속담도 그 일부가 관용어에 포함된다.

<표 2>에 나타난 기존 논의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관용어’를 상위 범주로 하여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 비속어 등’을 하위 범주로 설정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관용어’를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 비속어 등’과 마찬가지로 하위 범주로 하고 이를 ‘관용 표현’이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시키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관점의 차이는 연구자들끼리 ‘관용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광의로, 또 다른 곳에서는 협의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오제운(1998 : 26)은 이처럼 ‘관용어’가 광의와 협의 두 가지 모두 사용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語’라는 단어의 의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본다. 즉 “國語”나 “言語”에서처럼 이 ‘-語’를 ‘언어전반’을 지칭하는 경우가 전자의 경우이고, “複合語”, “合成語”, “派生

語”에서처럼 ‘-語’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관점과 ‘慣用語’라는 용어가 ‘-語’라는 의미자질과는 관계없이 형태 · 통사 · 의미론적 특성에서 융합 합성어, 속담, 수사법(비유 · 반어 · 역설 · 과장), 고사성어, 은어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단지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굳어진 말’로 보는 관점이 후자의 경우라는 것이다.

문금현(1999 : 27-28)은 ‘관용어’는 표면상으로는 구나 문장으로 표현되더라도 의미 단위로는 하나의 단어와 대등하다는 의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므로 단어 차원의 관용 표현만을 제한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문금현(1999)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용어’를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 비속어, 명언 등’과 대등한 범주에 놓고,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관용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 2.2. 관용 표현의 효과

인간의 언어생활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표현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관용 표현은 단순한 어휘적인 표현이 지니지 못하는 표현적인 효과를 지니는데,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용 표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8)</sup>

### ① 강화(強化)

관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로, 의미의 강화를 들 수 있다.

- (1) a. 나는 슬펐어.  
b.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 (2) a. 그것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된다.  
b. 그것 때문에 속이 탄다.

(1 a, 2 a)는 단순한 어휘적 표현, (1 b, 2 b)는 관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먼저 (1 b)의 문장은 (1 a) 문장의 경우보다 정서를 더욱 여실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매우’, ‘아주’, ‘정말’ 등의 정도 부사를 사용한 (2 a)의 문장보다 관용 표현을 사용한 (2

8) 이택희(1983 : 22-26)는 관용 표현을 발화의 기능과 효과에 기초를 두고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 ① 표현의 강화를 위한 표현
- ② 교훈적 행동 지표적인 표현
- ③ 은폐를 위한 표현
- ④ 천대, 멸시, 야유를 위한 표현
- ⑤ 오락을 위한 표현
- ⑥ 교감적 기능(phatic function)의 표현
- ⑦ 노력 경계를 위한 표현
- ⑧ 완곡한 표현

b)의 문장이 더 높은 정도의 강한 정서를 나타내 준다. 이처럼 관용 표현은 단순한 의미 전달 이외에,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 ② 완곡(婉曲)

- (3) a. 죽(을) 쭈다
- b. 미역국(을) 먹다
- c. 쓴잔을 들다
- d. 손을 들다

(3 a)는 ‘실패하다, 망치다’, (3 b)는 ‘실패하다, 낙방하다’, (3 c)는 ‘패배하다, 쓰라린 경험을 하다’, (3 d)는 ‘항복하다, 실패하다’의 뜻으로, 모두 우리 인생에서 슬픔과 좌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3 a~d)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우회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정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곡의 효과를 준다.

(3 a~d)와 같은 표현 외에도, “변소→화장실”, “천연두→손님”, “용변 후 뒤처리→밀 닦다”처럼 금기 대상이나 추한 것을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여 겸손하고 예절 바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

## ③ 경제성

- (4) a. 죽다.
- b. 눈(을) 감다.
- c. 밥 숟가락(을) 놓다.
- d. 눈에 흙이 들어가다.

우리는 (4 a)의 일상적 표현이 있으면서도, (4 b~d)의 관용 표현을 쓴다. 이러한 관용 표현은 인간의 음성 실현에 있어 음절면에서 더 길기 때문에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심리와 상반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언어 경제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처하는 상황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게 된다면 어휘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우리의 기억부담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어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이로써 무한정 불어나는 어휘수를 줄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Makkai(1978)<sup>9)</sup>는 이러한 언어 경제성의 원리를 다수 재투자 가능성 원리(MRP ; multiple rein-vestability principl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 ④ 은폐

언어 표현에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 또는 이들이 포함된 동류 집단 이외의 제3자에게는 그들의 의도를 숨기는 은폐의 효과를 지닌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행동이나 집단의 비밀보장을 위해 특정한 집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한 집단 내에서 대중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은어를 들 수 있다.

#### (5) a. 토화

#### b. 접시꾼

(5 a)는 원말을 뒤집어 읽은 것으로 ‘화투(화토)’를, (5 b)는 원말을

---

9) 오제운(1998), 「우리말 관용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0 재인용

다른 방식으로 읽은 것으로 접시는 사기로 만든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기꾼’을 의미한다.

⑤ 멸시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협력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을 때 원만히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러한 원칙이 깨어짐으로써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거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관용 표현으로 비속어를 들 수 있는데, 비속어는 상대방을 천대 또는 멸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다.

(6) a. 군바리

b. 나발(을) 불다

(6 a)는 군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6 b)는 당치 않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들은 관용 표현 중 비속어에 속한다.

한편,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가벼운 야유나 농담을 하기도 한다. 어떤 일을 저질러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하는 발화로 “자네 돈 벌었군!”이 그 예이다.

⑥ 교훈

관용 표현 중에서도 일부의 속담과 고사성어 등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쓰는 발화이다.

- (6) a. 불장난하면 자다가 오줌 심다.  
b.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6 a)는 ‘불장난을 하지 말아라’는 금지의 의미를, (6 b)는 ‘어른 말을 잘 들어라’는 권장의 의미를 행동 지침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훈이나 감화의 효과를 갖는다.

⑦ 친근

- (7) a. 어디 가십니까?  
b. 차린 것은 없어도 많이 드세요.

(7 a)에 대해 “예, OO 갑니다.”라고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으며, (7 b)에 대해 “차린 것도 없는데 무엇을 먹으라는 거요?”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인사말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의미 또는 글자 전체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쓰이므로 관용 표현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친근감을 표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강위규(1998 : 46-47)는 특정 상황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현과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려는 말할이의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관용 표현의 생성에는 다음과 같은 말할이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 i)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을 구체적인 이미지의 말을 통해 개성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려는 의도
- ii) 비극적인 상황이나 불가피한 일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
- iii) 상대의 요구를 완곡하게 또는 보다 강하게 거절하려는 의도
- iv) 사회적 교류를 쉽게 하려는 의도
- v) 은폐, 유모어, 위트 등을 나타내려는 의도

또한 강현화(1987 : 53-55)는 어떤 관용 표현이 항상 어떤 표현 효과만을 갖는다는 규칙을 세우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관용 표현 자체의 특성보다는 그 쓰이는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같은 관용 표현이라도 그 쓰임의 상황에 따라 다른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미역국을 먹다(시험에 낙방하다)’는

- i) 당사자의 경우 : 수치심을 숨기고 이를 감추고자 하는 은폐효과  
대수롭지 않은 일임을 나타내는 완곡효과
- ii) 상대방의 경우 : 빈정거림, 질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멸시효과  
위로의 의도에서 대수롭지 않음을 표시하려는 완곡효과

등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관용 표현은 화자의 발화의도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 강화, 완곡, 경제성, 은폐, 멸시, 교훈, 친근 등의 효과를 갖게 된다.

### Ⅲ. 2007 개정 교육과정 관용 표현 교육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와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용 표현 교육 내용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개정의 중점 항목<sup>10)</sup>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 3.1. 관용 표현 교육 목표

문법 교육이 언어에 내재하는 일정한 규범적 질서 혹은 규칙 체계에 대한 학습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법은 언어의 규칙, 언어 생성의 원리, 언어 요소의 기능이 연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문법 능력이란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어와 현재의 국어, 그리고 앞으로의 국어를 통시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를 바

10) 교육과학기술부(2008 : 11-14)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을 다음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 ②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 ③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 ④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 ⑤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 ⑥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 ⑦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11) 교육과학기술부(2009 : 193)

탕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문법 영역의 일부인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의 합이 아닌 제 3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므로, 관용 표현의 이해를 위해서는 연상 및 유추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관용 표현은 그 어떠한 어휘들로도 대체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표현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용 표현의 사용은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의미한다. 또한 관용 표현은 언중 속에서 형성되고 그들의 담화 현장에서 익숙한 형태로 통용될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우리 사회·문화·역사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언어 자료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용 표현이 교육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구현해야 할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교육의 목표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상태,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상태를 의미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국어과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기술한 ‘전문’과 이를 한 단계 구체화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 b.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 c.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sup>12)</sup>

전문은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로서 ‘알아야 할 것(a.)’, ‘실천해야 할 것(b.)’, ‘지녀야 할 태도(c.)’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는 관용 표현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a)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b) 국어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용 표현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c)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국어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관용 표현을 포함한 국어의 발전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세부 목표는 전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세 개의 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 역시 각각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관용 표현은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국어과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 중 하나로, 관용 표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의의는 지식 자체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국어 능력의 신장에 있다. 그리고 나) 관용 표현에 대한 능력은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이며, 이

12) 교육과학기술부(2008 : 16-17)

러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담화와 글의 수동적인 수용·생산을 지양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생산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관용 표현을 발전시키고 관용 표현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데, 이는 정의적 교육 내용과 관련된 목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용 표현의 교육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는 관용 표현이 담화나 글에서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지 분석 및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 관용 표현의 사용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분석하여 관용 표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료를 제시하여 관용 표현에 담겨 있는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4)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는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국어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관용 표현을 창조적으로 변형(예 : 패러디 등)하는 활동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용 표현의 규칙을 찾아내는 학습자 위주의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3)</sup>

---

13) 관용 표현 교육은 ‘문법’ 영역에 해당하며,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는 문법 학습을 두고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문법에 대한 학습은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국어 사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문법 학습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서술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15-16)

### 3.2. 관용 표현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의미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항은 학년별 내용을 선정하는 준거로서의 ‘내용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한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항 구성 방법에 따라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을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3.2.1. 내용 체계

<표 3>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변화

제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sup>1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본질</li> <li>- 언어의 특성</li> <li>- 국어의 특질</li> <li>- 국어의 변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이해와 탐구</li> <li>- 음운 - 낱말</li> <li>- 어휘 - 문장</li> <li>- 의미 - 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에 대한 태도</li> <li>- 동 기</li> <li>- 흥 미</li> <li>- 습 관</li> <li>- 가 치</li> </ul>	<b>국어 사용의 실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운      - 단어</li> <li>- 문장      - 담화/글</li> </ul>	
			<b>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의 본질</li> <li>◦ 국어의 특질</li> <li>◦ 국어의 역사</li> <li>◦ 국어의 규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과 적용</li> <li>-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법</li> </ul>			<b>맥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의식</li> <li>◦ 국어 생활 문화</li> </ul>	

<표 3>과 같이, 제7차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는 내용 범주(본질, 이해와 탐구, 태도)를 상위 범주로, 실제(규범과 적용) 범주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는 실제 범주를 상위 범주로, 내용 범주(지식, 탐구, 맥락)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sup>15)</sup>

이러한 내용 체계의 변화는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관용어의 개념과 종류 알기, 관용어의 특징 알기’처럼 ‘실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 · 독립적 · 탈맥락적인 지식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중심으로,<sup>16)</sup> 이것의 수용과 생산을 위한 내용 요소 ‘관용 표현의 개념 이해(지식)-관용 표현 활용(기능)-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맥락)’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 · 하위 범주의 설정이 바뀌게 된 요인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 · 독립적 · 탈맥락적인 지식과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았다. 둘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실제’ 범주를 1차 조직자로, 담화와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2차 조직자로 설정함으로써

14)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국어 지식’이라는 영역명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i) ‘국어 지식’에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 모두를 지시한다는 점, ii) ‘국어 지식’에서 ‘지식’이 ‘쓰임과 활용’까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18)

15) 교육과학기술부(2008 : 18)

16)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담화나 글에서 어떤 표현 효과를 드러내는지 분석 및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43-44)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7)</sup>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로 기존의 ‘태도’ 범주를 삭제하고 ‘맥락’<sup>18)</sup>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탈맥락적인 지식,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자신의 언어 행위를 역사, 문화, 사회라는 넓은 맥락에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관용 표현 교육 내용에서도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과 관용 표현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용 표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sup>20)</sup>라고 명시함으로써 이전의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문화라는 맥락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교육과학기술부(2008 : 11)

18) ‘맥락’ 범주는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 요소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16)

19) 교육과학기술부(2008 : 12)

20) 교육과학기술부(2008 : 43)

### 3.2.2. 학년별 내용

<표 4> 제7차 교육과정의 관용 표현 내용

학년	영역과 교육 과정의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
	영역	교육 과정 내용	
7	쓰기	4)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p>【기본】 주어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적절히 인용하여 글을 쓴다.</p> <p>【심화】 주제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찾고 인용하면서 글을 쓴다.</p>
8	국어 지식	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p>【기본】 관용어의 예를 찾아 그 뜻을 말한다.</p> <p>【심화】 관용어와 관용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본다.</p>

<표 5>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용 표현 내용

학년	영역과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영역	성취 기준		
7	문법	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li> <li>◦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li> <li>◦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li> </ul>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

<표 4>, <표 5>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관용 표현 관련 용어는 그 명칭과 범주의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sup>21)</sup>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7학년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다양한 표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준별 학습 활동에 쓰인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의 상·하위 범주를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sup>22)</sup> 이와 달리, 8학년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관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관용 표현의 범주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이를 통해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도 관용 표현의 명칭과 범주가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의 명칭과 범주의 혼란 문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된다. <표 5>와 같이 7학년 성취기준에서 사용된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설명을 교육과정에서 찾아보면, “학습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속담, 명언, 관용어 등과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sup>24)</sup>과 “...8학년에서는 속담, 관용적 표현, 격언, 명언 등을 활용하여...”<sup>25)</sup>이다. 전자의 예에서는 ‘등과’<sup>26)</sup>라는 단

21) 이는 앞서 ‘2.1.’ 절에서 살펴본, 관용 표현의 학문적 연구에서 나타난 명칭과 범주의 혼란이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이것은 “다양한 표현 ㄱ 관용 표현 ㄱ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으로 수정해야 한다.

23) 교육부에서 편찬한 8학년 2학기 생활 국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 ‘관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범주를 알 수 있다.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이다. 관용어와 비슷한 것으로는 속담이 있는데, 대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속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표현 효과를 거둔다. 관용어나 속담은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가 특별히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하나의 낱말처럼 쓰인다.”(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생활 국어』 2-2, p.51)

“...그리고 활동 4에서는 관용어나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과 일반적 표현을 비교하여 표현 효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학습을 한다.”(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 국어』 2-2, p.315)

24) 교육과학기술부(2008 : 44)

25) 교육과학기술부(2008 : 68)

26) 교육과정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의도는 ‘등’이었던 것 파악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바를 따르기로 한다.

어를 통해 앞의 ‘속담, 명언, 관용어’와 뒤의 ‘관용 표현’을 서로 관계 없는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후자의 예에서는 ‘관용적 표현’<sup>27)</sup>을 ‘속담, 격언, 명언’과 대등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되는 관용 표현의 명칭과 범주 설정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sup>28)</sup>

① 성취 기준<sup>29)</sup>

<표 4>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7-쓰기-(4)]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sup>30)</sup>와 ‘[8-국지-(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sup>31)</sup>이다. 또한 <표 5>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sup>32)</sup>이다.

27) 여기에서 ‘-적(的)’은 ‘그 성격을 띠는’ 또는 ‘그에 관계된’의 의미로, 관용 표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 범주를 지칭한다.

28)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명칭과 범주의 혼란과 달리, 다음의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관용 표현의 명칭과 범주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관용 표현은 오랜 세월이 걸쳐 다듬어져 사회적으로 굳어진 간결한 표현으로, 속담, 관용구, 명언, 고사성어가 있다.(박영목 외 11인(2010),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p.231)”

“관용어, 속담, 명언 등의 관용 표현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조동길 외 12인(2010), 중학교 『국어』 1-2, 비상교육, p.114 생각 열기 중)”

29)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였다.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내용’보다는 ‘성취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23)

30) 이 내용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학습자가 의사 전달력이 높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의 중요성 알기,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의 종류 알기, 다양한 표현을 글의 종류나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글 쓰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 30)

31) 이 내용은 관용어의 개념을 아는 학습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어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관용어의 개념 알기, 관용어의 종류 알기, 우리말 관용어의 특징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 59)

32) 이 성취 기준은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과 관용 표현의 관계를 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학년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의 진급과 함께 관용 표현 내용의 세분화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7학년에서 ‘다양한 표현’이라는 포괄적 내용을 다루다가 8학년에서 ‘관용어’라는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5>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용 표현과 연관된 성취 기준이 7학년의 하나로 줄어 학년 간의 수직적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내면적으로는 8학년<sup>33)</sup>에서 속담, 관용적 표현, 격언, 명언 등을 활용하여 자서전을 쓰게 함으로써 학년 간의 수직적 연계성 문제를 보완하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에 속하는 성취 기준은 ‘[8-쓰-(5)]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로 관용 표현보다는 자서전 쓰기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관용 표현에 대한 비중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내용의 적정성(내용의 많고 적음, 내용 수준의 높고 낮음)을 전체 수업 시수, 중복 여부, 내용의 층위, 학습자의 수준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sup>34)</sup>로 보인다.

## ②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 수준에서 수준별 교육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며, 국어 과목의 경우 <표 4>와 같이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반영하기가

---

해하고 관용 표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43)

33) 교육과학기술부(2008 : 67-68)

34) 교육과학기술부(2008 : 13)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준별 교육이 국가 수준의 수준별 학습에서 학교 및 교사(교수·학습) 수준의 수준별 학습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5)</sup> 이에 따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담화와 글의 내용, 범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영역별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sup>36)</sup>를 제시하였다.<sup>37)</sup>

<표 5>와 같이 관용 표현과 관련된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는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학습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속담, 명언, 관용어 등과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담화나 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풍자 만화 등<sup>38)</sup>에 나타난 관용 표현 관련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sup>39)</sup> 이처럼 언어 자료를 구체적인 예로 밝힘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

---

35) 최미숙(2009 : 35)

36) 이때 ‘담화’는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글’은 ‘쓰기’ 영역에서, ‘언어 자료’는 ‘문법’ 영역에서, ‘작품’은 ‘문학’영역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를 표현한 것이다.

37) 교육과학기술부(2008 : 12)

38) 이 부분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매체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국어과 교육에서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체 의사소통에 사용된 담화와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9) 교육과학기술부(2008 : 44)

통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언어자료(속담, 명언, 관용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를 학습 과정에 다룸으로써 성취 기준인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궁극적으로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를 수용·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 ③ 내용 요소의 예

내용 요소는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표 5>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관용 표현과 관련된 내용 요소의 예로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지식)’,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기능)’,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맥락)’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40)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의 국어 능력 신장에 있고 이때 국어 능력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능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최미숙, 2009 : 35)

#### IV. 2007 개정 교과서 관용 표현 관련 단원 분석 및 평가

교과서에는 추상적인 교육과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주체의 가치와 신념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교과서를 개발하는 주체가 어떤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들과 달리, 국어 교과서를 국정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7학년에서는 23종의 국어 교과서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검정 교과서 체제는 국가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국가가 교과서를 구상한 것이 아니므로, 각 집필진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그 의도를 적절히 살려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장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용 표현 내용을 분석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용 표현 내용이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4.1. 관용 표현 관련 단원 분석 및 평가의 기준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과 학년별 내용의 해설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관용 표현과 관련된 단원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천재교육(박영목 외)’의 『국어』 7학년 2학기와 ‘비상

교육(조동길 외)’의 『국어』 7학년 2학기 총 2권이며,<sup>41)</sup> 그 중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 있는 단원을 분석할 것이다.<sup>42)</sup>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의 내용과 교과서 단원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개정 교과서(천재(박), 비상(조))의 구성

2007 개정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의 구성	천재(박) 국어 교과서의 단원 내용 구성	비상(조) 국어 교과서의 단원 내용 구성
◦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예	◦ 들어가기-학습 목표	◦ 단원의 창-학습 목표
◦ 설정 이유와 중점 지도 사항	◦ 들어가기 -배울 내용 들여다보기	◦ 단원의 창 -내가 찾은 학습 마당
◦ 교수·학습 내용 및 방향	◦ 함께 나누기 ◦ 학습 활동-내용학습, 목표학습, 통합학습 ◦ 단원의 마무리 ◦ 선택 학습	◦ 들어가며 ◦ 학습 활동-내용학습, 목표학습, 생각맺기 ◦ 선택 학습 ◦ 단원의 마무리
◦ 담화의 수준과 범위	◦ 본문	◦ 본문

위의 표를 보면 교육과정 내용 구성과 교과서 단원 내용의 구성이 일정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41)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23종의 국어 교과서 중에서 대단원 구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문법’ 영역에 속하는 관용 표현을 천재(박)에서는 ‘문학’, ‘듣기’ 영역과 함께 구성하였고, 비상(조)에서는 ‘듣기’ 영역과 함께 구성하였다. 따라서 천재(박)은 비상(조)에 비하여 영역 간 통합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상(조)는 대단원을 ‘공감-인지-확장’ 단원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단계성을 고려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42) 관용 표현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단원은 천재(박) 『국어』 7학년 2학기 <5. 선인들의 삶과 언어>와 비상(조) 『국어』 7학년 2학기 <3. 한국인의 말>이다.

내용과 교과서의 단원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얼마나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의 구체적인 분석은, 먼저 각 단원의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예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담화의 수준과 범위에 비추어 소단원 본문에 사용된 학습 제재의 적정성을 따져볼 것이다. 이때 학습 활동에 사용된 텍스트 역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내용 해설의 교수·학습을 위한 중점적인 활동 내용과 지도방법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의 연결성을 분석할 것이다.

## 4.2. 2007 개정 교과서 관용 표현 관련 단원 내용 분석 및 평가

### 4.2.1. 천재(박) 『국어』 교과서 분석 및 평가

천재(박) 7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는 모두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된 것은 마지막 대단원 ‘5. 선인들의 삶과 언어’이다. 먼저 대단원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들어가기’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이 부분에는 학습목표와 학습의 주안점 등이 드러나 있다.

<표 7> 천재(박) 『국어』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대단원 도입부

대단원	단 위		내 용
5. 선인들의 삶과 언어	들 어 가 기	학습 목표	1.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다. 2.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배울 내용 들여다 보기	(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일제강점기 말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작가의 자전적 소설을 읽고 인물들이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파악해 봅니다. (2) 밥타령 - 판소리 ‘홍보가’의 일부를 듣고, 재담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해 봅니다. (3) 관용 표현의 이해 - 다양한 관용 표현이 들어 있는 글을 읽고, 속담과 관용구의 의미와 사용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대단원은 선인들의 삶을 문학 작품과 언어생활(재담, 관용 표현)을 통해 엿볼 수 있게 하고자 설정하였다. 그래서 성취기준 ‘[7-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와 ‘[7-듣기-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를, 관용 표현 관련 성취기준인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분리된 여섯 영역을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계획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단원에서 관용 표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소단원은 ‘(3) 관용 표현의 이해’로, 학습목표 ‘3.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는 성취기준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를 교과서에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소단원 (3)의 구성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천재(박) 『국어』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소단원 구성

소단원	단 위	내 용
(3) 관용 표현의 이해	함께 나누기	1. 다음 속담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만화 내용을 보고 추측해 봅시다. 2.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과 예를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본 문	속담에 대하여 - 이기문
	학습 활동	내용 학습 이 글에 나오는 관용 표현과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목표	1. <보기>와 같이 다음 문장에서 관용

		<p>구를 찾아 밑줄을 긋고,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적어 봅시다.</p> <p>2.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lt;보기&gt;에서 골라, 대화 상황에 어울리도록 바꾸어 써 봅시다.</p> <p>3. 관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과 사용한 문장을 비교해 보고, 표현 효과의 차이를 말해 봅시다.</p> <p>4. &lt;보기&gt;와 같이 관용 표현을 바꾸어 써 봅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p>
	통합 학습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을 찾아 친구들과 빙고 놀이를 해 봅시다.

<표 8>에서와 같이, 이 소단원에서 채택한 본문 이기문의 ‘속담에 대하여’는 속담을 격언이나 관용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속담, 격언, 관용구 등의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담고 있는 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소단원의 도입단계라 할 수 있는 함께 나누기 ‘1. 다음 속담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만화 내용을 보고 추측해 봅시다.’와 학습활동의 목표학습 ‘2.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 상황에 어울리도록 바꾸어 써 봅시다.’에서는 공통적인 언어 자료로 만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7학년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학습 수준, 필요와 요구 등을 적절히 고려한 언어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언어 자료 역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화의 수준과 범위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풍자 만화 등에 나타난 관용

표현 관련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다.

학습활동은 내용학습, 목표학습, 통합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용학습에는 본문에서 제시된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연결하는 활동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활동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본문에 제시된 관용 표현이 속담, 격언, 관용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내용 해설에서는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모든 활동의 바탕으로 삼고 있으나, 천재(박) 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 전체를 통틀어 통합학습 한 군데에서만 이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박) 교과서의 학습활동 중 가장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곳은 목표학습 부분이다. 목표학습은 총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활동은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의 예를 비교적 적절하게 담고 있어 내용 요소간의 통합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의 구성 단계는 교육과정 해설의 지도방법과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 내용 해설에서는 관용 표현의 지도방법을, “(a)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b) 이것들이 담화나 글에서 어떤 표현의 효과를 드러내는지 분석 및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 관용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때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 분석하여 (d) 관용 표현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sup>43)</sup> 반면에 목표학습에서는 ‘(a) → (c), (d) → (b) → (d), (c)’의 순서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표학습의 구성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목표학습 내에서 비슷한 활동을 중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43) 교육과학기술부(2008 : 43-44)

마지막 통합학습은 관용 표현으로 친구들과 빙고 놀이를 해 보는 활동이다. 빙고 놀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을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 4.2.2. 비상(조) 『국어』 교과서 분석 및 평가

비상(조) 7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 있는 대단원은 ‘3. 한국인의 말’이다. 먼저 대단원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단원의 창’의 구성은 <표 9>와 같다. 앞서 천재(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에는 학습목표와 학습의 주안점이 드러나 있다.

<표 9> 비상(조) 『국어』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대단원 도입부

대단원	단 위		내 용
3. 한국인의 말	단 원 의 창	대 단 원	재미있는 말이나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학 습 목 표	(1) 재미있는 말 재담의 의미와 기능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말의 발상을 이해한다. (2) 함께 쓰는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3) 우리는 ‘한술밥’을 먹어요 우리말 표현에 나타난 우리 고유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내가 찾은 학습 마당	재담과 관용 표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재담과 관용 표현의 특성을 이해한다.                          → 재담이나 관용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 재담과 관용 표현을 오늘날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해 본다.                     </div>

비상(조) 『국어』 교과서 구성의 특징은 대단원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성취 목표를 ‘공감-인지-확장’ 단원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단원 ‘3. 한국인의 말’의 소단원 ‘(1) 재미있는 말’은 공감 단원, 소단원 ‘(2) 함께 쓰는 관용 표현’은 인지 단원, 소단원 ‘(3) 우리는 ‘한술밥’을 먹어요’는 확장 단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공감 단원에서는 재담 두 편을 읽고, 재미를 주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알아본다.<sup>44)</sup> 다음으로 인지 단원에서는 관용 표현의 쓰임과 효과를 이해하고, 관용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확장 단원에서는 재담과 관용 표현에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말과 정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배운다.

이 대단원에서 관용 표현과 관련 있는 소단원은 (2)와 (3)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단원 ‘(2) 함께 쓰는 관용 표현’의 학습목표는 ‘관용 표현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이다. 이것은 성취 기준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를 거의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마지막 소단원 ‘(3) 우리는 ‘한술밥’을 먹어요’의 학습목표는 ‘우리말 표현에 나타난 우리 고유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성취 기준과는 별개로, 소단원 (1)의 재담과 (2)의 관용 표현을 확장하여 구성한 것이다.

먼저 소단원 ‘(2) 함께 쓰는 관용 표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4) 소단원 ‘(1) 재미있는 말’의 학습목표는 ‘재담의 의미와 기능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말의 발상을 이해한다.’이다. 이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7-듣기-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를 구현한 것이다.

<표 10> 비상(조) 『국어』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소단원 (2)의 구성

소단원	단 위	내 용
(2) 함께 쓰는 관용 표현	들어가며 (생각 열기)	1. 국어사전에서 ‘밭’이라는 단어를 찾아 밑줄 친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2. 관용어, 속담, 명언 등의 관용 표현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3. 일상적인 말보다 관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잘 전달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본 문	시치미 떼지 마세요 - 정주리
	학습 활동	내용 학습
	목표 학습	1. 다음 관용어들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 적고, 관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자. 2. 다음은 오영수의 ‘요람기’ 중 일부분이다. 본문에 쓰인 다음 관용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어질 ‘들래 영감’의 말을 재치 있게 만들어 보자.
	생각 맺기	1. 다음 예문에 쓰인 관용 표현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어 써 보자. 그리고 바꾸기 전과 비교하여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2. 다음은 이미 쓰고 있는 관용 표현과 그것을 모방하여 만들어 낸 표현이다. 이를 참고하여 관용 표현 한 가지를 골라서 본래의 의미를 밝히고, 재미있게 바꾸어 표현해 보자.

소단원 (2)에서 채택한 본문 정주리의 ‘시치미 떼지 마세요’는 관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로, ‘관용어의 개념과 특성, 형태와 기능, 형성 과정, 속담과의 비교’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천재(박) 교과서의 내용인 ‘속담의 정의, 속담과 관용구의 차이’에 비하여 많은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7학년이라는 학습자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관용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다소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줄 수도 있으나, 다양한 관용 표현을 예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적절히 유발하는 관용 표현 학습에 적합한 언어 자료로 생각된다.

학습활동은 내용학습, 목표학습, 생각맺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용학습은 본문의 주요 내용인 ‘관용어의 개념, 특징, 효과, 형성 과정, 속담과의 비교’ 등을 모두 수록하여 다른 학습활동들에 비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학습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 아니라, 담화를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또한 내용학습의 앞에 이미 제시한 본문의 날개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내용학습은 관용 표현의 쓰임과 효과 정도로 간추려 수록할 필요가 있다.

목표학습에서는 두 가지 활동만으로 ‘관용 표현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학습목표를 잘 구현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활동에서는 오영수의 ‘요람기’라는 소설의 일부분을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소설 속의 상황을 이해한 후, 그에 적합한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소설 뒷부분을 창작하게 함으로써 다른 영역과의 통합학습을 구현하고 있다. 마지막 학습활동인 생각맺기는 관용 표현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거나 창조적으로 변용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를 알고, 상황에 따라 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하기에 적합하다.

다음으로 소단원 ‘(3) 우리는 ‘한술밥’을 먹어요’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비상(조) 『국어』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소단원 (3)의 구성

소단원	단 위	내 용
(3) 우리는 ‘한술밥’을 먹어요	들어가며 (생각 열기)	1.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 반을 뽐낼 수 있는 표어를 만들어 보자. 2. 우리반 친구들이 식구 같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3. 우리가 즐겨 쓰는 관용 표현 중에 우리 고유의 생활 문화와 정서가 담긴 표현을 찾아보자.

	본 문	빵과 밥 - 이어령
학습 활동	내용 학습	1.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빵과 밥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2. 이 글에 나와 있는 ‘한술밥’ 문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1. ‘한술밥을 먹는다’는 말에서 드는 느낌이나 연상되는 것을 발표해 보고, 친구들과 서로 비교해 보자. 2.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찬밥’과 ‘더운 밥’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 대해 더 알아보자. 3. 관용 표현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겨 있다. 따라서 뜻은 같지만 나라마다 언어 표현이 다를 수 있다. 다음 두 관용 표현을 비교해 보자. 4. 다음은 이 글에 나타난 관용 표현들이다.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휘 학습	‘빵과 밥’에는 우리의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와 관련 있는 어휘인 ‘아랫목’도 나타나 있다. 다음 글에서 ‘아랫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음 관용 표현의 의미를 추측해 보자.
	생각 맺기	1. 우리 반 친구들을 ‘한술밥을 먹는 식구’라고 느꼈던 경험을 다른 친구들

		과 나누어 보자. 2.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 써 온 관용 표현들이다.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상황에 어울리는지 살펴보자.
--	--	--

이 소단원에 제시된 본문 이어령의 ‘밥과 빵’은 음식 문화에 담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 표현에 담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이다. 따라서 재담과 관용 표현에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시키고, 우리말과 우리의 정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에 적합한 언어 자료라 할 수 있다.

학습활동은 내용학습, 목표학습, 어휘학습, 생각맺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관용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목표학습 2, 3, 4와 어휘학습, 생각맺기 2이다. 먼저 목표학습 2는 ‘찬밥’과 ‘더운 밥’이 주는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시키는 활동이다. 목표학습 3은 관용 표현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존재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목표학습 4는 우리나라 관용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문화와 정서를 생각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 소단원의 학습활동에서는 다른 소단원들과 달리 어휘학습을 첨가하였는데, 이는 낯선 관용 표현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휘학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맺기 2는 관용 표현이 공간(나라)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문화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이러한 학습활동들은 대부분 학습목표 ‘우리말 표현에 나타난 우리 고유의 정서를 이해하고’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학습목표 ‘이(우리말 표현)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는 생각맞기 2-(2)에서만 짚막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 내용에 대한 첨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본 연구는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살펴보고,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 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학교 교육에서 관용 표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관용 표현은 우리 사회·문화·역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언어의 그윽한 맛과 인정, 교훈,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주기도 하는 수준 높은 표현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교과서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용 표현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관용 표현 이론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체계화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이론과 명칭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각의 어휘가 지닌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해석되는 언어”를 ‘관용 표현’이라고 보고, 이것의 하위 범주로 ‘관용어,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 비속어, 명언 등’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 표현들은 화자의 발화 의도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 강화, 완곡, 경제성, 은폐, 멸시, 교훈, 친근 등의 효과를 갖는다.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관용 표현이 담화나 글에서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지 분석 및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어떤 상황에서 관용 표현의 사용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분석하여 관용 표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료를 제시하여 관용 표현에 담겨 있는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4)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국어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관용 표현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활동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관용 표현 교육 내용에는 개정 중점의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성취기준은 교육 내용의 적정성(내용의 많고 적음, 내용 수준의 높고 낮음)에 의하여 7학년에서 한 차례 제시되었는데, 이는 관용 표현 비중 약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학년별 내용에서는 관용 표현과 관련된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소통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과 관련된 내용 요소의 예를 내용 요소 선정 범주인 지식, 기능, 맥락에서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였다.

넷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23종의 국어과 교과서 중에서 천재(박)과 비상(조) 국어 교과서 2권의 관용 표현 관련 단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법 영역에 속하는 관용 표현 내용을 대단원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천재(박)은 문학 영역과 듣기 영역, 비상(조)는 듣기 영역과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조)에서는 대단원 성취 목표를 ‘공감-인지-확장’ 단원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두 교과서에서 활용된 본문 모두 관용 표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고 있거나 다양한 관용 표현을 예문으로 사용하고 있어,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활동의 구성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먼저 천재(박)의 목표학습 구성 단계는 교육과정 내용 해설에 제시된 지도방법과 순서상 차이가 있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상(조) 소단원(2)의 내용학습은 본문의 날개와 내용 대부분이 중복되므로 간추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조) 소단원(3)의 학습활동에는 우리말 표현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하는 활동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는 총 23종이나, 본고는 2종의 국어과 교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종합적 성격을 띠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미흡하지만 본 연구가 앞으로 계속될 관용 표현 교육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생활 국어』 2-2, 대한교과서(주)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 · 생활 국어』  
2-2, 대한교과서(주)  
박영목 외 11인(2010),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조동길 외 12인(2010), 중학교 『국어』 1-2, 비상교육

### 단행본

- 강위규(1998), 『국어 관용표현 연구』, 세종출판사  
김문창(1990), 『관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국어학회  
박영준 최경봉(2005) 『관용어 사전』, 태학사  
박영순(1987), 『현대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최미숙 외 7인(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학술논문

- 김문창(1974), 「국어 관용어의 연구」, 『국어연구30』, 국어연구회  
김종택(1971), 「이디엄 연구」, 『어문학25』, 한국어문학회  
김라연(1996), 「국어의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 『수련어문논집22』,  
수련어문학회

- 문금현(1999), 「관용 표현에 대한 국어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박만규(2002),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어학41』, 국어학회
-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집』, 서울대
- 양영희(1995), 「관용 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26』, 국어학회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 이희자(2003),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연구」, 『국어학41』, 국어학회
- 장세경 장경희(1994),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25집』, 한양대

#### 학위논문

- 강위규(1990), 「우리말 관용표현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
- 강현화(1987), 「국어 속어표현에 대한 고찰」, 연세대 대학원 석사
- 권경일(2005), 「국어 관용구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
- 김미련(1994), 「국어 관용 표현의 실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
- 신선미(2006), 「효과적인 국어 관용어 지도방안 연구-8학년 심화 학습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대원 석사
- 심주연(2000),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 연구」, 고려대 교대원 석사
- 안경화(1987), 「한국어 속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
- 안연희(2006), 「국어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대원 석사

- 오제운(1998), 「우리말 관용어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
- 이광주(2002),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교대원 석사
- 이윤정(2006), 「국어 관용 표현 지도 연구: 중, 고등학교 지도방안」, 성신여대 교대원 석사
- 이택희(1983), 「관용적 표현의 언어 의미 연구」, 전북대 교대원 석사
- 장미정(2004), 「관용어 지도방안 연구:8학년 보충학습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대원 석사
- 한세경(2004), 「초등학교 국어과 관용어 지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대원 석사

## ABSTRACT

Analysis of edu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  
- revolve around reformed curriculum and textbook of 2007 -

Myung-jin Le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diomatic expression which is made with more than two words and not interpreted as the sum of the meaning of each words but as a totally new meaning reflects our society's unusual culture and history. These learning of idiomatic expressions boost high skills to think such as reminding and inference and makes able to understand overall about our society, culture and history. So its educational value is sufficient.

As the Korean education is recently taught with the new textbook by the reformed curriculum of 2007, there was need to concern how the idiomatic expression was treated in the

new curriculum and textbook. So this manuscript progressed the study as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ly,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he idiomatic expression through the study and arranged the effect of idiomatic expression.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how edu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 was treated in the reformed curriculum of 2007. At first, this study thought about the object of the edu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 based on the object of reformed Korean education or 2007. For the next, it examined how the idiomatic expression education reflects the items appeared in the curriculum revision in 2007.

Thirdly, it analyzed how the idiomatic expression of curriculum revision of 2007 is reflected in the textbook. The object of the textbook was cheon-jae education(Park) 『Korean』 textbook and bi-sang education(Jo), 『Korean』 textbook. It examined in order of the aims of the lessons, body, Learning activities by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

Even though this study didn't put all the korean textbook followed by the reformed curriculum of 2007, it hopes that this study can give at least little help to the study for the edu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